

# “한국, 16강행 확률 29.4%...F조 꼴찌”

美아후스스포츠, 러시아월드컵 프리뷰 코너...조1위 확률 5.9% 뿐

“역동적 손흥민 있지만 가장 어려운 조...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한국이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할 확률이 70%가 넘는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아후스스포츠는 23일(한국시간)

러시아월드컵 프리뷰 코너에서 한국이 속한 F조의 전력을 조명했다. 한국의 16강 진출 확률은 29.4%

로 같은 조에 속한 독일(98.8%), 멕시코(46.5%), 스웨덴(42.6%)에 비해 낮다. 한국이 F조 1위를 차지할 확률은 5.9%로 집계됐다. 월

트컵 우승 확률은 0.2%다.

아후스스포츠는 “한국은 브라질, 독일, 아르헨티나, 스페인에 이어 5번째로 긴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면서 “역동적인 손흥민이라는 공격수가 있지만, 가장 어려운 조 중 하나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의 강점으로는 공격력을 꼽았다. “한국은 최종예선 원정 5경기에서 1골 밖에 넣지 못했지만 기술이 좋은 손흥민을 보유하고 있다.”

수비는 약점으로 지적됐다. “최종예선에서 11골을 넣는 동안 10골을 내줬다. 카타르와의 두 경기에서 5실점을 했고, 안방에서 중국에도 2골을 빼앗겼다. 독일과 멕시코에 무너질 수 있다. 스웨덴에도 피지컬에서 압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이 4-4-2 포메이션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3월 친선전에서는 3-4-3도 꾸렸다고 덧붙였다.

베스트 11으로는 골키퍼 김승규(빗셀고베), 수비수 이용(전북)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 장현수(FC도쿄) 김진수(전북), 미드필더 권창훈(디종) 박주호(울산) 기성용(스완지시티) 이재성(전북), 공격수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잘츠부르크)을 거론했다.

권창훈의 경우 아직 남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정현, 또 발목 부상 탓 ‘빨간불’

ATP투어 리옹오픈 기권 · 2주연속 대회 불참

한국 테니스의 간판스타 정현(22·한국체대·세계랭킹 20위)의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프랑스오픈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계속되는 발목 부상 탓이다.

정현은 발목 부상으로 인해 남자 프로테니스(ATP) 투어 리옹오픈에 불참한다.

당초 정현은 24일 오전(한국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고 있는 이 대회 단식 2회전에서 질 시몽(34·프랑스·75위)과 맞붙을 예정이었지만 최근 그를 괴롭혀 온 오른쪽 발목을 털어내지 못해 대회 출전을 포기했다.

리옹오픈에서 4년 시드를 받아 1회전을 부진승으로 통과한 정현은 시몽을 꺾을 경우 8강에 진출하고 8강에서도 시드 배정을 받지 못한 선수를 만나게 돼 대진운이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부상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클레이코트 대회에서 매서운 상승세를 자랑한 정현은 기다려 온 클레이코트 시즌에 발목 부상으로 고전 중이다.

4월말 발목 부상으로 바르셀로나 오픈으로 클레이코트 시즌을 시작하려던 정현은 발목 통증이 생겨 대회에 불참했다.

이달 초 독일 뮌헨에서 열린 BMW오픈에서 4강까지 오르며 건재를 알리는 듯 했던 정현은 이어 열린 마드리드오픈에서는 1회전 탈락의 아픔을 겪었다.

정현은 또다시 발에 부상이 생겨 지난주 이탈리아 로마에서 펼쳐진 마스터스 1000시리즈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에 불참했다.

이번 대회를 거친 뒤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프랑스오픈에 나서



러던 정현은 재차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발됐다.

지난해 바르셀로나오픈 8강, BMW오픈 4강 등의 성적을 거두며 컨디션을 끌어올린 정현은 프랑스오픈에서 3회전까지 진출해 당시 세계 9위이던 니시코리 게이(29·일본·21위)를 5세트까지 몰아붙였다. 비록 패배했지만, 톱10 선수를 상대로 신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호주오픈에서 4강까지 오른 정현은 클레이코트 시즌에 상승세를 이어가 프랑스오픈에서 한층 좋은 성적을 노리겠다는 각오였지만, 계속되는 부상에 컨디션을 끌어올릴 기회를 놓쳤다.

정현은 이번주 세계랭킹에서 20위를 유지하면서 ATP 세계랭킹 상위 32명에게 주어지는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시드를 쟁겼다. 한국 선수가 메이저대회 단식 본선에 시드를 받는 것은 정현이 처음이다.

## 호날두, 가장 유명한 스포츠스타 1위...97위는 미셸 위

‘World Fame 100’ 3년연속 최고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스타로 선정됐다. 미국 스포츠매체 ESPN이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월드 페임(World Fame) 100’에서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와 브라질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도 3, 4위에 올라 축구선수들의 위상을 높였다. 2위는 미프로농구(NBA) 스타인 르브론 제임스(클리블랜드), 테니스의 ‘전설’ 로저 페더러(스위스)는 5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6위에 이름을 걸었다.

ESPN은 해마다 검색 순위, 후원 계약, 소셜미디어 영향력 등을 종합해 가장 인기 있는 운동선수 순위를 가린다. 호날두는 검색어 순위 100점으로 메시(134점), 네이마르(179점)에 미치지 못했고 후일 계약에서는 제임스에 뒤졌지만 소셜 미디어 팔로워(1억2170만명)에서 다른 선수들을 압도했다.

호날두와 제임스 메시는 지난해와 2016년 조사에서도 각각 1~3위를 기록했다.

한편 100위 안에 한국 선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시아 선수 중에는 중국의 수영 선수 쑨잉이 17위, 필리핀 복싱선수 매니 파퀴아오가 69위에 꽂혔다. 또 일본 피겨 스케이트 선수 하뉴 유히루 70위, 골프 선수 미셸 위(미국)가 97위에 올랐다.

뉴시스

## 센추리클럽 앞둔 ‘캡틴’ 기성용의 기록들



축구대표팀의 ‘캡틴’ 기성용(스완지시티)이 28일 대구에서 열리는 온두라스와의 친선경기에 출전하면 A매치 100경기 출전을 달성하게 된다.

대한축구협회는 경기 하프타임에 기성용의 영문 이름 ‘K’에 착안해 황금열쇠를 축하선물로 증정할 예정이다.

19살이던 2008년 9월 요르단과의 친선경기에서 데뷔한 이래 10년만에 ‘센추리 클럽’에 가입하는 기성용의 A매치 기록을 28일 대한축구협회가 소개했다.

28일 대구서 열리는 온두라스전 출전시 A매치 100경기 달성

19살이던 2008년 9월 데뷔 이래 10년만에 센추리 클럽 가입

대한축구협회가 집계한 A매치 100경기 이상을 뚫은 한국 선수는 최다 출전자인 차범근, 홍명보(이상 136경기) 등 모두 13명이다. 기성용은 14번째 주인공이 된다.

온두라스전 출전으로 100경기를 맞이하면 기성용은 29세 12일로 센추리 클럽 가입자 중 세번째로 어리다.

연간 A매치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1970년대에 차범근이 24세, 김호곤이 26세에 100경기를 뚫었다.

99경기 중 풀타임은 모두 60경기다. 총 8006분으로 평균 출전 시간은 약 81분이다. 경기 도중 교체 아웃된 경기가 34경기, 교체 투입돼 들어간 경기가 5경기다. 선발 출전

은 무려 94경기나 된다. 감독이 스타팅 라인업을 짤 때 제일 먼저 이름을 적는 선수인 셈이다.

월드컵에서도 2010년 4경기, 2014년 3경기 모두 풀타임으로 뛰었다.

이 기간동안 기성용은 총 10골을 넣었다. 두번째 A매치였던 2008년 9월 10일 북한과의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중거리포로 결승골이자 데뷔골을 기록했다. 마지막 득점은 작년 6월 카타르전이다.

정확한 킥 능력을 자랑하는 선수답게 골보다 도움이 많다. 남아공 월드컵 첫 경기 그리스전에서 이경수의 골을 어시스트한 이래 지금까지 15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의 골을 도운 것이 3개로 가장 많다.

2012년 9월11일 브라질월드컵 예선 우즈베키스탄전에서는 자책골을 기록했다. 머리에 맞은 공이 우리 골문으로 빨려들어갔다. 엘로루 카드는 18장을 받았다. 2016년 10월 카타르전을 마지막으로 이후 12경기째 카드가 없다. 퇴장은 한번도 당하지 않았다.

2014년 10월 파리과이전 이후로는 대표팀의 캡틴을 맡고 있다. 주장으로 출전한 경기는 총 33경기다. 기성용을 상징하는 등번호는 16번이다.

A매치 데뷔 무렵에는 23번처럼 비어있는 번호도 달았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 16번이 고정 번호가 됐다. 16번을 달고 출전한 경기가 83경기나 된다.

## “女팀추월 김보름·박지우의 노선영 왕따 논란, 고의성 無”



뒤처지는 사례는 다수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느 점문기는 문체부의 자문 요청에 “경기 초반 부 간격이 벌어질 경우 각자 최선을 다해 주행을 하는 것이 기록 단축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백철기 스피드스케이팅 감독의 인터뷰 내용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백 감독이 레이스 이후 국민들의 반박이 거세지자 “많은 분들이 넣은 것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데 이는 경기 전담 노선영이 제시한 작전”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문체부는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노선영은 이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노선영이 마지막 주자로 결정된 것을 인지한 시기는 경기 당일이며, 노선영을 마지막 주자로 배치하는 작전은 전 날 다른 선수가 백 감독에게 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레 소식을 접한 노선영은 자신이 없었지만 선배로서의 책임감으로 역할을 수락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대회 직전까지 노선영이 출전권 미획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빙상연맹 직원의 실수였다. 노선영은 빙상연맹이 규정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출전이 무산될 뻔 했지만 도핑 전력이 있는 러시아 선수 2명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출전 승인을 얻지 못해 가까스로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를 폭행한 조재범 전 코치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했다. 조 전 코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하기 하루 전인 1월16일 심석희에게 발과 주먹으로 수습 차례 폭행을 가했다.

심석희는 폭행의 공포감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선수촌을 빠져나왔고, 빙상연맹은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심석희가 병원에 있다”고 허위보고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에서 김보름(25·강원도청)과 박지우(20·한국체대)가 노선영(29·폴링팀)을 배제한 채 속도를 높인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의성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문체부는 23일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벌인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를 밝혔다.

문체부는 3월26일부터 지난날 30일까지 빙상연맹 특별감사에서 이 사안을 들여다봤다. 관련자 진술과 면담, 다른 국가 대표팀 사례, 이전 국제대회참가 시 우리 국가대표팀의 경기 사례, 경기 당일 전후의 상황, 경기 영상 기술적 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레이스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체부는 작전 수립 과정에서 지도자와 선수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도자들이 작전 수립의 책임을 선수들에게 미뤘고, 노선영이 뒤처지고 있음에도 앞선 선수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명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국내의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경기 중 일부 선수가